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of Newsletter

발행인 : 정인과 / 편집인 : 이동우 / 발행처 : 정인과 (152-7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과 / TEL : 02-818-6608 / FAX : 02-852-1937
발행일 : 2008년 4월 30일 / 제 작 : (주)엠엘커뮤니케이션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2-15 / TEL : 02-717-5511 / FAX : 02-717-5515

Contents

- 02 | 권두언
- 05 | 학술 활동 소식
- 06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소식
- 08 | 해외학회 참관기
- 10 | Review
- 12 | 학술대회 안내
- 14 | 회원 동정
- 15 | 대한노인정신의학 논문 투고 안내
- 16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Vol. 14, No. 1 Spring 2008 봄 호

| 권두언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시행 결과 보고



卷頭言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해져서 이제는 제법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제도 시행을 위해 여러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제 2008년, 인증의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 드디어 '노인정신건강 인증의'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전문의'는 아니지만 노인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위한 제도의 시행을 기대하신 여러 회원들과 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뜻에 따라 '세부전문의'에 상응하는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는 노인관련 타 학술단체의 동향과 국가정책방향의 흐름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 '노인정신건강 인증의'를 배출하게 된 점에 대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노인정신의학회도 정신과 의사가 노인관련 정신과적 질환에 개입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인증의가 인정받은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시행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신과에서 노인관련 전문가 자격에 대한 필요성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에서의 정신과적인 특별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해 지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고, 2004년 6월부터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규정이 시행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작 절차로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규정 및 경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부 전문가를 위한 제도는 제대로 된 전문가의 배출을 위해 적절한 수련기관을 통해서 적합한 전문가를 수련시켜야 하나, 현 실정에서 이러한

| 권두언 |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초기에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석으로 일정한 평점을 획득한 회원이면 세부 전문가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2003년부터 연수교육, 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 노인정신건강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술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노인정신건강 관련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세부 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요건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세부 전문가의 시행을 위해 준비를 조심스럽게 진행시키면서 2006년에는 이 제도를 '세부 전문의' 제도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전문가 제도의 시행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셨던 여러 회원들의 기대를 더 이상 지연시키기가 어려워 결국 2007년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인정

하는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 전문의 제도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인증의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2008년도부터 '노인정신건강 인증의'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정식으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주무부서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험문항 출제, 인증의 세부규정의 개정작업,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일정 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인증의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응시자격 요건의 확정과 면제 요건에 대한 가안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7년 11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증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간표가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부터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취득을 위한 지원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7일에는 인증의 교육 및 시험 준비를 위해 '노인정신건강 연수교육'을 시행하였으며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하여 노인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지식 및 임상적 술기를 전문가들과

| 권두언 |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인증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4일에는 서울의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인증의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련병원 책임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418명의 '노인정신건강 인증의'가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4월 중에는 인증의 증서를 배부할 예정이며 2008년 5월 23일에 열릴 예정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증서 수여식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간단한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첫 인증의 제도시행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지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제도'는 이의 시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을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함께 우려가 있지만, 날로 늘어가는 노인인구와 함께 노인에서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보다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 시행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제도가 보다 확고히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련기관을 통해 표준화된 수련 프로토콜을 가지고 일정 수련기간을 통해서 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의 준비를 위해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을 포함하여 내년까지는 현재의 기준으로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이후에는 '노인정신건강 인증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문적인 수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전에 '노인정신건강 인증의'를 취득하신 회원들께서는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정 인 과

※ 노인정신건강 인증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이사 (shryu@kku.ac.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 활동 소식 |

- 2007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07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추계연합학술대회

일 시 2007년 11월 9일 (금) 09:00 ~ 18:00

장 소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서울 6호선 효창공원역앞, 효창운동장옆)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수교육 : 치매의 진단을 위한 포괄적 신경심리검사 도구들에 대한 이해

사회 : 배재남 (인하대), 좌장 : 조맹제 (서울대)

09:30~10:00 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의 적용과 해석

안인숙 (삼성서울병원)

10:00~10:30 CERAD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의 적용과 해석

추일한 (서울대병원)

10:30~11:00 기타 포괄적 신경심리 검사들에 대한 적용과 해석

김양래 (순천향대)

11:00~11:30 포괄적 신경심리검사들에 대한 비교와 임상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준영 (서울대)

11:30~11:50 토론

12:00 Luncheon Symposium

연자 : 유승호 (건국대) / 좌장 : 오병훈 (연세대)

추계학술대회: Diagnostic Consensus on Major Illnesses of Dementia

: 치매 주요원인질환들의 지난 10여 년간 임상적 진단 기준 변화를 환자 증례를 통하여 조망해 보고자 함.

사회 : 김도관 (학술이사)

13:20~13:30 개회사 정인과 (이사장)

Part I, VD & FTD

좌장 : 정인과 (고려의대)

13:30~13:55 Development of current diagnostic criteria of VCD and VD

13:55~14:15 Case Illustration I

이재홍 (울산대)

14:15~14:40 Development of current diagnostic criteria of FTD

14:40~15:00 Case Illustration II

김혜란 (성균관대)

15:00~15:20 Q & A

15:20~15:40 Coffee Break

Part II, AD & LBD

좌장 : 이정호 (인제대)

15:40~16:05 Development of current diagnostic criteria of MCI and AD

16:05~16:25 Case Illustration III

주진형 (강원대)

16:25~16:50 Development of current diagnostic criteria of LBD and PDD

16:50~17:10 Case Illustration II

신일선 (전남대)

17:10~17:30 Q & A

17:30~18:00 General Assembly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소식

- 제14회 고령사회 포럼 -

인구 고령화와 공적연금 개혁

일시 2007년 6월 5일 (화) 19:00

장소 서울역 앞 금호아시아나 빌딩 (구 대우센터) 2층 컨벤션 홀

사회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김태현 교수

19:00	개 회	
19:00~19:05	인사말	연병길 고령사회포럼위원회 위원장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19:05~19:10	고창순 전 위원장님에 대한 감사패 증정	
19:10~19:50	주제발표	관동대 국제경영학과 김상호 교수
19:50~20:10	토론발표 I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
20:10~20:30	토론발표 II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김용하 교수
20:30~21:15	청중토론	
21:20	폐 회	

- 제15회 고령사회 포럼 -

장수를 위한 노화과학

일시 2007년 9월 11일 (화) 19:00

장소 서울역 앞 금호아시아나 빌딩 (구 대우센터) 2층 컨벤션 홀

사회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김태현 교수

19:00	개 회	
19:00~19:10	인사말	연병길 고령사회포럼위원회 위원장,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19:10~19:40	발표 I - 노화시계로써의 텔로미어 가설	연세대 생물학과 정인권 교수
19:40~20:10	발표 II -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성균관대 의과대학 유준현 교수
20:10~20:40	발표 III - 우리는 왜 노화하는가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황은성 교수
20:40~21:15	청중토론	
21:20	폐 회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소식 |

- 제16회 고령사회 포럼 -

노인정신건강과 노인정신질환 : 추세와 전망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19:00

장 소 서울역 앞 금호아시아나 빌딩 (구 대우센터) 2층 컨벤션 홀

사 회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김태현 교수

19:00	개 회	
19:00~19:10	인사말	연병길 고령사회포럼위원회 위원장,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19:10~19:50	주제발표	노인정신건강과 노인정신질환 : 추세와 전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맹제 교수
19:50~20:10	토론발표 I	김포 한별신경정신병원 서동우 박사
20:10~20:30	토론발표 II	서울여자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사회사업학과 최혜지 교수
20:30~21:15	청중토론	
21:20	폐 회	

- 제17회 고령사회포럼

노인병이란 무엇인가? -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일 시 2008년 3월 10일 (월) 19:00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사 회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김태현 교수

19:00	개 회	
19:00~19:10	인사말	연병길 고령사회포럼위원회 위원장,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19:10~19:50	주제발표	노인병이란 무엇인가?-다시 한번 생각한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유형준 교수
19:50~20:10	토론발표 I	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
20:10~20:30	토론발표 II	울산의대 일반내과 이은주 교수
20:30~21:15	청중토론	
21:20	폐 회	

| 해외학회 참관기 |

오사카 학회에서 가져온 네 가지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연구강사 김어수

처음으로 외국 학회에 다녀왔다. 일본 오사카, 세계 노인정신의학회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Association) 모임이었다. 필자의 보스이신 오병훈 선생님과 동료 이강수 선생님, 두 분의 바쁜 일정 탓에 (projection) 셋이 모두 다른 날짜에 뿔뿔이 흩어져 출발을 하였다.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해놓은 타인지 (rationalization), 일이 없는 타인지 (insight), 하여간 바쁘지 않은 필자만 제 날짜에 외롭게 비행기를 탔다. 일본! 그곳에 대해 별로 아는 건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쓰레기를 길가에 마구 버림으로써 복수를 하고 올라 가는 애국적 퇴행반응(regression)이 먼저 일어났다. 옆자리에 예쁜 일본 여성이 앉자마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비행기를 처음 탄 초등학생처럼 등돌리고 앉아 창 밖만 내내 바라보다가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 마비된 채로 히로시마에 내렸다. 타 병원 견학을 먼저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 왼쪽 방사능 오염이 남아있지 않을까? (obsession)’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용감히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렸다 (identification, social learning).

그리고 일본에 가서 네 가지를 크게 느꼈다. 첫째, 견학한 병원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연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 지역 노인정신과 관련 종사자들의 예비모임에서 느낀 것이다. 영어를 잘 해야겠다는 새삼스런 깨달음이었다. 셋째, 학회에서 느낀 것인데, 일본이, 최소한 연구 측면에서,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이겨야 한다. 넷째, 인적 교류에 관한 것이었다. 영어나 일을 별로 하고픈 맘이 안 생겨서(?), 다른 인적 교류는, 있다 해도, 거의 없었고, 그곳에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난 한국 선배 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느낀 것이다.

첫째 부분은 매우 강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써야겠다. 일본의 매우 모범적인 노인정신과전문병원이자, 아무도 그 영문 이름의 뜻을 풀이하지 못했던 Kinoko Espoir Hospital이 도착 첫 날 견학한 병원이었다. 이 병원의 원장님이신 켄 사사키 박사는 치매 환자의 배회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자와 의료진의 에너지 소모와 마찰을 막고, 어떤 면에서는 환자에게 자유를 허용하기도 하면서 나름 운동도 시킨다는 개념으로 1980년대 초반 처음 병원 설계 당시 중앙 복도를 원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환자들은 계속해서 복도를 걸어도 막다른 골목을 만나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정부로 하여금 모범적인 노인병원 설계라고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병원의 사사키 박사는 자신의 그러한 발상이 ‘지금 돌이켜보면 한심한 것’이었다고 자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필자가 이해한 바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그 내용이 참으로 멋지다.

‘환자를 계속 배회하게 한다는 것은 한심한 것이었다. 환자는 계속 배회하다가 지칠 뿐이다. 그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 환자들이 배회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낯선 병원 환경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고,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이 이런 삭막하게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텅 빈 병원 복도에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오로지 걷는 것 뿐이었던 것이다. 병원 환경을 집처럼 변화시키고, 복도에 앉을 수 있는 의자들과 화분과 벽장식과 문을 만들어 놓자 병원내의 어떤 환자도 더 이상 배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이었다.’ 이와 함께 비수와 같은 한마디를 던지셨다.

‘아직도 BPSD를 항정신병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정신과의사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그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 해외학회 참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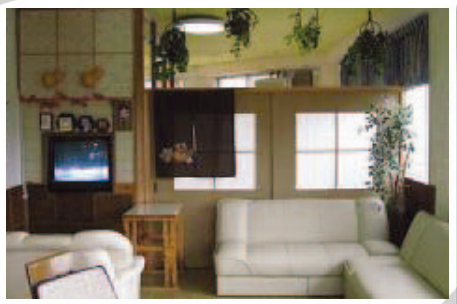
사사키 병원장은 이후 병원 전체를 집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위험할까봐 놓지 않았던 꽃병부터 아기자기한 장식품들로 병실과 복도를 채우고 몇 개의 병실마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응접실과 같은 생활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병실마다 테이블과 의자들을 놓았다. 치료진도 가운을 벗고 일상복을 입고 환자와 함께 생활한다. 매우 급성 환자 외에는 상당히 중증의 치매 환자들도 편안하게 그 안에서 '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맡은 환자만 1명에서 5명 정도만 지속적으로 본다 고 했다. 야간은 20-30명당 한 명의 야간 당직자가 근무를 한다고 한다.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는 잘 때 외에는 안 바뀌게 된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손상되어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좋은 방식이었다. 과연 이러한 치료가 생물학적 뇌위축의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요실금, 변실금' 에도 도움이 되냐는 어느 선생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사키 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잘라 대답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의 구조와 정책이 바뀐 후 병원에서 소모되는 기저귀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 그 철학과, 그 철학을 삼자원 공간에 실현해 놓은 병원의 실내 환경이 말 그대로 놀라웠다. 그런데 직원이 300명이라고 했다. 환자 180명에 직원 300명!! 버금가게 놀라왔다.

둘째로 홍콩,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젊은 연구자들, 노인관련 종사자들이 학회 전 예비 모임을 가졌다. 유승호 선생님께서 '누군들 영어를 잘 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죠!' 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일본인들에게 '발음으로 승부' 하려고 야심 차게 자리에 앉았다. 주제별로 테이블 미팅을 하는데, 홍콩사람들! 왜 말이 그렇게 많은지! 온갖 뻔한 얘기를 열심히 늘어놓았다. 주제는 치매 환자의 인지 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발음으로 승부' 를 못하고 주춤하다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김도관 선생님 연구실의 안인숙 임상심리사를 무조건 우리 테이블로 모시고 왔다. 하하! 게임 오버! 자존심을 건 치열한 삼국지에서 한국의 압승이었다. 안인숙 선생님이 나이별, 교육별로 표준화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여러 평가도구들을 주욱 읊어주시는 것이다. 오사가 대학의 일본 의사는 일본에는 ADAS-cog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자랑을 하다가 말문이 막혔고, 홍콩은 뭐 별거 없는데 떠들다가 말문이 막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홍콩에서 온 작업 치료사들이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환자를 위한 실용적 방법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영어 능력이라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일본의 연구능력에 대한 것이다. 여러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만 해도 그렇지만, 특히 포스터 세션에 올라온 연구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신경 분자 생물학 분야의 연구가 매우 앞서가고 있었다. 한 발표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생물학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느냐고. 오사가 대학의 다케다 정신과 주임교수는 아직도 생물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계속 연구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일본을 앞서가려면 훨씬 더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신이 버쩍 들 정도였다.



일정을 마치고, 그래도 가슴에 여행 후 블루처럼 은은히 남는 것은 역시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대부분의 노인정신의학회의 선배님들은 멀리서 발표하는 것만 몇 번 보았을 뿐, 가까이서 대한 적이 없었는데, 형과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관록이 지긋하신 선생님들까지 모두 따뜻한 기품을 가진 분들이었다. 서먹하여 갓 노인정신의학 분야에 발을 들여놓는 필자로서는 조심스럽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몇 번의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나누고 느꼈던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일본의 이국적 정취보다 더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정신과 전공의 시절 초에도 그랬듯이 과 자체보다 사람을 보고 나서 더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 해외학회 참관기 |



학회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한마디만 한다면, 역시 정신과는 bio-psycho-social 한 approach를 하는 곳이거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다. 한 군데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특정 단백질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한 군데에서는 치매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의료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호자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사중심적인 공감행위에 한계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곳에 정진하여 한 방울의 물방울을 더 해야 할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마음으로 인천항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옆에 앉은 일본 아저씨가 꼼지락 대면서 자꾸 내 팔다리를 건드리는 통에 깊은 상념에 젖을 수는 없었다. 지난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것도 맨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보는 매너 없는 일본 사람이었다. '그것 봐, 일본이 훌륭한 것만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거리를 찾게 되어 기쁘기도 한 순간이었다.

Protein misfolding, Oxidative Stress, neuroprotection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연구강사 김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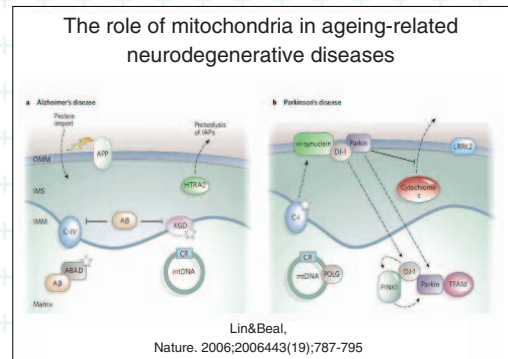
신경세포 노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기능부전과 관련된 가설이다. 이는 특히 산화적 스트레스와 연관되기 때문에 free radical에 의한 노화 가설과도 연결되고, 또한 에너지 대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대사증후군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흥미로운 부분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된 장소이다.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를 이용하여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위치한 전자전달계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ATP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free radical들이 생긴다.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는 세포 내 어디보다도 free radical들의 농도가 높은 곳이다. 이는 곧, 미토콘드리아가 그러한 독성 물질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genome이나 polymerase가 손상되면, 이는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기능부전, 즉 에너지 생산에 부전이 오고, 이는 더욱 많은 free radical을 만들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세포 내 산화적 인산화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는 비산화적 방법을 통해 에너지를 합성하게 된다. 즉, 포도당의 anaerobic glycolysis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세포 내 산성물질을 축적시키게 되고 비슷한 악순환을 겪게 한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 부전이 신경세포 노화라고 설명되고 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부전은 노화자체뿐 아니라, 여러 퇴행성 신경질환, 즉,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 병 등의 병태생리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판1) 그러므로, 항산화물질이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좋게 하는 여러 물질은 항노화 치료나 치매의 치료제의 후보가 된다. 독일의 Joerg Schulz 박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갖는 의미와 이에서 항산화물질의 시도들이 나타난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비타민 E, coenzyme Q10 등이 파킨슨병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는 결과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Schulz는 이러한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즉, 효과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 임상 시험의 디자인이나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항산화제의 사용이 너무 늦었거나, 용량이 충분치 않았거나, 너무 단기간 사용했거나, blood brain barrier의 통과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약물을 함께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우에하라 박사는 좀 특이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Ischemic insult가 가해진 경우 살아남은 세포도 있는데 이는 여러

| Review – 2007 Osaka IPA Silver Congress |

가지 보호 기구들이 발현되기 때문인데, 산화물질 중에서도 NO가 특정 단백질내 sulfonyl기에 결합하여 만드는 nitrosative 화합물이 이러한 보호 작용을 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퇴행성신경질환의 병태생리에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였다. 허혈성 손상을 주고 쥐의 뇌에서 발현되는 여러 단백질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protein-disulfide isomerase (PDI)라는 것이 있었다. PDI는 S-S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3차원 구조상 잘못 접힌 (misfolding) 다른 단백질들의 -SH (sulfhydryl)기에 결합하여 새로운 S-S 를 이루어, 마치 꼬인 실을 죽여주듯이 하여 다시 잘 접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다. 바로 이 단백질의 S-S기가 NO와 같은 free radical 물질의 target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에하라 박사 가설이다. 실제로 이러한 PDI의 S기에 NO가 붙은 SNO-PDI의 양이 정상군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2006년도 Nature지 441호 (513-517)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가설의 근거는 신경세포가 다른 산화물질에는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NO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관찰이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Dr. Kudo는 더욱 생소한 것을 발표했다. ER stress라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 한 발 더 나가 endoplasmic reticulum의 stress가 퇴행성신경질환과 관련있다는 것이었다. 잘못 접혀서 (misfolding) 기능을 못하는 단백질의 세포내 축적은 세포의 기능저하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세포는 이러한 단백질을 줄이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도판 2) 첫째가 자꾸 잘못 접히는 단백질의 합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이다 (translational attenuation). 둘째는 이들을 Proteasome으로 보내서 분해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ER-associated degradation이라고 한다. 셋째는 위의 PDI처럼 chaperone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합성을 늘려서 단백질의 정확한 3차원적 folding을 돕는 것이다. 이를 translational induction이라고 한다. Kudo 박사는 세 번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iP라는 단백질을 유도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 20,000개의 compound library로부터 BiP inducer를 찾아냈다. 이는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chaperone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BiP만 생리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20,000개의 물질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질을 찾아낸 것이다. 이를 허혈 손상이 있는 쥐에게 주어서 실제로 뇌세포 보호 작용이 있다는 것과 독성물질로부터 세포 과사를 막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Ebixa®
memantine

“새로운 기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Lundbeck

한국론드벡 주식회사

제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Tel. 02)431-6600 Fax. 02)431-6886
www.lundbeck.co.kr

한국안선

It's Nice

Allosteric Nicotinic Modulator
Reminyl
GALANTAMINE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문의들이 치매치료를 위해
아리셉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Human Health Care Company
Eisai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성공화타워 12층
Tel. 02)3451-5500 Fax. 02)3451-5599
www.aricept.co.kr

NOVARTIS **EXELON**
(rivastigmine)

치매, 이제는 다르게
접근 할 때입니다.

Rapid decline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Exelon투여시 더욱더 효과가 우수합니다.
(12주후 ADAS cog에 있어서 5점이 향상)

| 학술대회 안내 |

- 2008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07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추계연합학술대회

일 시 2008년 5월 23일 (금) 09:30 ~ 18:30

장 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참 가 비 정회원/전공의/군전문의 20,000원 (당일등록 30,000원)

비회원/전문의 30,000원 (당일등록 40,000원)

평생회원 면제, 모든 등록자에게 중식 및 주차권 제공

사전등록 www.kagp.or.kr (2008년 5월 21일 마감)

우리은행 1006-801-243564 예금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수평점 대한의협평점 5점,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이수평점 15점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후 원 한국안센, 한국에자이, 한국룬드벡, 한국노바티스, 대웅제약, 한국오츠카

문 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국 kagp@hanmail.net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2008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제도의 시행으로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400명이 넘는 '노인정신건강 인증'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노인정신의학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노인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및 학술활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은 오전 연수교육에서 노인 환자에서의 자문-조정과 관련된 문제를 증례와 함께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후의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인관련 정책과 관련 현안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노년기에 많은 암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 정신과의사로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여러 연자들이 준비한 자료를 나누시고 각자의 귀한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정 인 과

| 학술대회 안내 |

2008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연수교육 : 증례를 통한 노인환자 자문-조정 이해

- 15분 강의, 15분 증례 (증례 2개)
- 실제 자문 증례의 문제 해결식 강의 포맷
- 자문의뢰, 문제 평가 및 감별 진단 과정, 문제 해결, 추적 관찰

사회 : 배재남 (교육이사)

좌장 : 오병훈 (연세의대)

백종우 (경희의대)

09:30~10:00 노인환자의 자문-조정에 대한 일반적 원칙

10:00~10:30 섬 망 :

1)수면제 투약후 잠을 못자는 71세 할아버지,

2)흉추 압박골절 수술후 밤마다 우는 75세 할머니

김정란 (충남의대)

10:30~11:00 통 증 :

1)폐수술후 발생한 만성통증으로 여러 과를 전전한 67세 할머니

2)통증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거부하는 75세 할아버지

함봉진 (서울의대)

11:00~11:30 불 면 증 :

1)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잔다고 하는 65세 할머니

2)수면중 다리가 저려서 깬다고 하는 70세 할아버지

윤인영 (서울의대)

11:30~11:50 토론

12:00~13:10 Luncheon Symposium (한국오츠카)

김영호 (성균관의대 소화기내과)

춘계학술대회

사회 : 김도관 (학술이사)

13:10~13:20 개회사

정인과 (이사장)

Part I.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준비

좌장 : 정인과 (이사장)

13:20~13:5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서비스 등급 판정 과정
및 의사 소견서의 용도

유훈종 (건강보험공단)

13:50~14:20 의사소견서 작성 지침

이동우 (인제의대)

14:20~14:5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요양병원의 변화 :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김선태 (참병원)

| 학술대회 안내 |

14:50~15:30 Panel discussion

강홍조 (초정노인정신병원), 유훈종 (건강보험공단),
이동우 (인제의료), 김선태 (참병원)

15:30~15:45 Q & A

15:45~16:00 Coffee Break

Part II. 노년기의 정신종양학

좌장 : 이 철 (가톨릭의대)

16:00~16:25 노인 암환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신과적 문제의 현황

강지인 (일산병원 정신과)

16:25~16:50 노인 암환자의 생물학적 토대와 정신약물요법

김태석 (가톨릭의대 정신과)

16:50~17:15 말기암환자의 임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지원과)

17:15~17:40 암환자를 위한 통합지지치료

정승현 (국립암센터 재활클리닉)

17:40~18:10 암환자 디스트레스 관리 권고안 개발

김종훈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

18:10~18:30 Q & A

18:30 2008년도 '노인정신건강 인증' 증서 수여 : 광동일 회원 외 417명

| 회원동정 |

>>> 한창수 회원

한창수 회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과)는 현재 미국 듀크 대학에서 연수 중입니다. 노인정신의학과 임상연구팀에서 환자면담,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Duke-NIH 공동 프로그램인 Clinical Research Training Program에 참여하여 MHS in Clinical Research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 Han C, Jo SA, Kwak JH, Pae CU, Steffens DC, Jo I, Park MH: Validat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Korean vers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AGE study . Comprehensive Psychiatry 2008, in press.
2. Han C, Jo SA, Jo I, Kim E, Kwak JH, Park MH, Kang Y: An Adaptation of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in Elderly Koreans: Demographic influence and Population-Based Norms (AGE study) .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2007 Oct 11, In press.
3. Han C, Pae CU, Lee BH, Ko YH, Masand PS, Patkar AA, Jung IK: Fluoxetine versus sertralin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 회원동정 |

with undifferentiated somatoform disorder: a randomized, open-label, 12-week, parallel-group trial.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07, in press.

4. Lee JM, Park KW, Seo WK, Park MH, Han C, Jo I, Jo SA: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in Parkinson's Disease. Movement Disorder 2007, in press.

5. Han C, Pae CU, Patkar A, Masand PS, Kim KW, Joe SH, Jung IK: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 (PHQ-15) for Measuring the Somatic Symptoms of Psychiatric Outpatients. Psychosomatics 2008, in press.

6. Kim J, Park MH, Kim E, Han C, Jo SA, Jo I: Plasma Homocysteine Is Associated with the Risk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an Elderly Korean Population. The Journal of Nutrition 2007, 137(9):2093-2097.

7. Park MH, Jo SA, Kim E, Kim SS, Eun SY, Han C, Park MK: Awareness of putative risk factors for Alzheimer's disease among elderly Koreans. Acta Neuropsychiatrica 2007, 19:1-5.

8. Han C, Lee MS, Pae CU, Ko YH, Patkar AA, Jung IK: Usefulness of long-acting injectable risperidone during 12-month maintenance therapy of bipolar disorder.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07, 31:1219-1223.

9. Woo EK, Han C, Jo SA, Park MK, Kim S, Kim E, Park MH, Lee J, Jo I: Morbidity and related factors among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results from the Ansan Geriatric (AG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2007, 7:10.

10. Jo SA, Park MH, Jo I, Ryu SH, Han C: Usefulness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in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Int J Geriatr Psychiatry 2007, 22(3):218-223.

>>> 정 찬 승 회 원

정찬승 회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과)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제7회 세계노년신경정신약물학회 (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찬승 회원은 'Changes of Bending Angles of the Corpus Callosum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Patients' 라는 연구주제로 이 상을 수상하고 구연발표를 했습니다.

노인정신의학 논문 투고 안내

1. 투고규정의 일반 원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투고규정에 준합니다.
2. 투고자격 : 본 학회 논문과 편집위원회에서 의뢰되었거나 인정된 논문으로 합니다.
3. 원고의 종류 : 특집, 종설, 원저, 임상단보, 증례보고, 서평 등입니다.
4.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습니다.
5. 학회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행하며, 원고의 마감은 4월 말일(6월분)과 10월 말일(12월분)까지입니다.

• 논문접수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노인정신의학" 편집위원장 정한웅

402-70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7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과

• 전화 : 032-621-5232
• 전송 : 032-621-5018
• E-mail : hanyjung@schbc.ac.kr

• 주의사항 : 원본 1부와 디스켓, 사본 2부를 논문게재 동의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자우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의 양식 등 기타 사항은 '노인정신의학' 및 홈페이지 (<http://www.kag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회 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유승호 총무이사 (전화 : 2030-7567, 팩스 : 2030-7399, E-mail: shryu@kku.ac.kr)에게 보내어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입금 후 이메일(shryu@kku.ac.kr) 부탁드립니다.

- 입회비 : 2만 원
- 연회비 : 3만 원
- 평생회원 회비 : 50만 원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80-213455
예금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처

143-72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12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유승호 (총무이사)

• 전화 : 02-2030-7567 • 팩스 : 02-2030-7399
• E-mail : shryu@kku.ac.kr

이문수 (총무간사)

• 전화 : 02-818-6608 • 팩스 : 02-852-1937
• E-mail : npboard@hanmail.net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학회직책	성명	소속	E-mail	전화	FAX
이사장	정인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junginkwa@hanmail.net	02-818-6738	02-852-1937
고문	곽동일	근로복지공단 본부	ambresek.kr@yahoo.co.kr		
	유계준	김병후 정신과의원	kjy0036@hanmail.net		
	이정호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leedharmas@sanggyepaik.ac.kr		
	박종한	대구가톨릭병원	jpark@cu.ac.kr		
	이형영	전남의대	hylee@chonnam.ac.kr		
부이사장	조맹제	서울대학교병원	mjcho@snu.ac.kr	02-2072-3155	02-744-7241
	함웅	계요병원	hahm405@chollian.net	031-455-3333 (교환 510)	031-452-4110
차기이사장	오병훈	연세대학교 광주세브란스병원	drobh@chollian.net	031-765-0443	
총무이사	유승호	건국대학교병원	shryu@kku.ac.kr	02-2030-7567	02-2030-7399
학술이사	김도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paulkim@smc.samsung.co.kr	02-3410-3582	02-3410-0941
기획이사	이창욱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jihan@catholic.ac.kr	02-590-2789	02-594-3870
교육이사	배재남	인하대학교병원 정신과	jnbae@inha.ac.kr	032-890-3474	
홍보이사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dwlee@sanggyepaik.ac.kr	02-950-1990 (702)	02-936-8069
국제이사	오강섭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ks2485@lycos.co.kr	02-2001-2481	
간행이사	정한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hanyjung@schbc.ac.kr	032-621-5232	
보험이사	최종혁	국립의료원	jhc56@hanmail.net	02-2260-7292	02-2268-5028
무임소이사	김도훈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dohkim@hallym.ac.kr	033-252-9970	033-244-0317
	신일선	전남대학교병원	shinilseon@hanmail.net	062-220-6146	062-225-2351
	김성환	동아대학교병원	zapcho@yahoo.co.kr	051-240-5461	051-253-3542
감사	김영철	이대목동병원	kyc341@hanmail.net	02-2650-5379	
	이철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cle512@cmc.cuk.ac.kr	02-590-2722	
평이사	강홍조	초정노인정신병원	dr_hckang@yahoo.co.kr		
	고효정	서울시립은평병원	asteria90@yahoo.co.kr		
	기백석	중앙대학교병원	cauhpkbs@cau.ac.kr		
	김성운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sykim@amc.seoul.kr		
	김영돈	울산대학교 대전선병원	ydkim@sunhospital.com		
	김영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npkyh@chol.com		
	김희철	계명대학교병원	mdhck@dsmc.or.kr		
	서국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suhgh@chol.com		
	신영민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narae@seoulmc.or.kr		
	이민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leeminso@korea.ac.kr		
	전진숙	고신대학교병원	cheonjs@kosin.md		
	장안기	국립서울병원	changnmh@unitel.co.kr		
	정은기	국립서울병원	ekchg@unitel.co.kr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공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수렴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홍보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이동우 홍보이사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dwlee@sanggyepaik.ac.kr
정찬승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maumom@gmail.com